

노병천의 손자병법 인문학

글.
노병천 미국미드웨스트대학교 리더십박사
전 육군대학 전략학처장
전 미국지휘/참모대학 교환교수
전 나사렛대학교 교수, 부총장
현 한국전략리더십연구원 원장

28

숫자는 단지 숫자일 뿐이다

영화 300의 실제 이야기 테르모필레 전투

적수중 가사무투(敵雖衆 可使無鬪)

- 『손자(孫子) 허실 제6편』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사들이 온다!” 영화 300의 카피라이터 문구다. 처음 이 영화가 나왔을 때 아주 독특한 영상미로 인해 관객들이 매료되었다. 이 영화는 기원전 480년, 페르시아 대군의 침공을 맞은 스파르타군이 불과 300명으로 사흘을 버텼던 테르모필레 전투의 실제 이야기를 바탕으로 만들었다. 스파르타 국민의 구성은 특이하다. 국민 대부분은 전사들이었고 농사나 산업에는 일절 종사하지 않았다. 이들을 먹여 살리는 것은 수십만의 헬로트, 즉 노예들이었다. 이들 노예들에 비해 형편없이 수가 적은 스파르타인들은 당연히 이들 노예를 억누르



영화 300 포스터

기 위한 전쟁기술에 전념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이른바 스파르타식 훈련이라는 엄격한 전쟁 훈련 체계를 만들었다. 특히 이들은 활을 겁쟁이들의 무기라 하여 아주 멀리했다. 스파르타인들의 정신무장은 철저히기로 유명하다. 그들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 겁쟁이로 찍히는 것에 더 두려움이 컸다.

기원전 490년 제1차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에서 아테네가 마라톤 전투에서 극적으로 승리했다. 10년이 지난 후에 뒤늦게 페르시아의 크세르크세스는 거대한 육해군을 거느리고 그리스 전체를 정복하려 했다. 제2차 그리스-페르시아 전쟁이 터진 것이다. 아테네 장군 테미스토클레스는 그리스 연합군이 테르모필레 고개에서 페르시아 육군의 진입을 막고, 동시에 아르테미손 해협에서 페르시아 함대를 막자고 했다. 침공했던 페르시아군의 규모는 전통적으로는 100만을 말하고 있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20만여 명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을 맞은 당시 스파르타의 왕은 레오니다스였다. 나라를 떠나 저 멀리에 있는 테르모필레까지 원정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이때 레오니다스가 이끌고 가는 군대는 겨우 300명이었다. 왜 이렇게 병력이 적었을까? 자발적으로 왕을 따라 국외로 나갈 스파르

타 병사들이 적었기 때문이다. 레오니다스 왕은 델포이의 신탁을 얻으러 갔다. 그리고 거기에서 신녀는 왕에게 무시무시한 신탁을 내렸다. “왕이 죽지 않으면 스파르타는 멸망할 것이다.” 아마도 이 신탁을 듣고 레오니다스는 스스로 죽음을 택했을지도 모른다. 왕인 자기가 죽음으로서 자기 조국이 구원될 수 있다면... 오늘날 흔히 말하는 ‘고귀하게 태어난 사람은 고귀하게 행동해야 한다.’는 ‘노블리스 오블리제’(noblesse oblige)의 원형이 여기에 있다.

페르시아군이 아테네를 향해 기동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는 테르모필레를 통하는 일련의 험로였다. 이를 그리스인들은 예상할 수 있었고, 페르시아군은 그 예상되는 통로를 벗어날 수 없었다. 여기서 결판을 내야 했다!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이 좁은 목에서 막는 것이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자신이 데리고 온 스파르타인 300명을 포함한 그리스 동맹군 7,000명의 육군을 이끌고 테르모필레에 진을 쳤다. 그 중 1,000명만을 마차 한 대가 겨우 지날 수 있는 정도의 페르모필레 애로에 배치시켰다.

페르시아 왕 크세르크세스는 테르모필레에 도착하자 뜻밖의 적은 병력으로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스파르타군을 보고 겁을 먹고 스스로 물러나기를 바라면서 3일을 기다렸다. 그러나 그들은 놀랍게도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래서 궁수들을 시켜서 활을 쏘게 했다. 이때 한 척후병이 레오니다스에게 절망적

인 보고를 했다. “페르시아군이 어찌나 많은지 그들이 쏘는 화살이 해를 가릴 지경입니다.” 그러나 레오니다스는 호탕하게 받아넘긴다. “좋아. 그러면 우리는 시원한 그늘에서 싸울 수 있겠군!” 스파르타식 교육은 엄격한 군사 교육 만이 아니라 절망적 순간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유머와 호방함까지 교육시켰던 것이다. 드디어 페르시아군은 스파르타군을 향하여 본격적인 공격을 시작했다. 그러나 좁은 정면에 뺨뺨이 들어찬 스파르타군은 장창의 방진을 펴고, 페르시아군을 마치 파리를 잡듯이 죽여 넘겼다. 그런데 에피알데스로 알려진 자가 크레르크세스에게 보상을 받겠다는 욕심으로 스파르타군의 뒤로 돌아가는 비밀통로를 안내했다. 역사가 헤로도투스에 의하면 이때 레오니다스 왕은 스파르타군만을 남기고 다른 그리스 동맹 군사들은 탈출하라고 명령했다고 한다. 만약에 이 기록이 맞다면 마지막까지 남은 병사의 수는 스파르타인 300명밖에 없었다. 그러나 스파르타인들에게는 후퇴란 없었다. 300명만 남은 레오니다스 왕의 스파르타군은 끝까지 남아 절망적으로 버텼다. 칼과 창이 부러지고 나중에는 이빨과 손톱으로 싸웠다. 마침내 그들의 모습은 흡사 피에 주린 야수의 그것과 같이 되어 페르시아군들도 더 이상 접근하기가 두려울 정도였다. 페르시아군들은 마지막 일격으로써 화살을 스파르타인들에게 퍼부었다. 이것은 스파르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죽음의 방식이었다. 활은 겁쟁이들의 무기였으니까. 레오니다스를 비롯하여 300명의 용사들은 죽어갔다. 최후의 한 사람까지 조금도 굴하지 않

영화 300의 스틸이미지





영화 300에서 묘사된 스파르타의 왕 레오니다스와 페르시아의 왕 크세르크세스

고 싸웠다. 스파르타의 300 용사와 레오니다스의 희생 덕분에 아테네는 황금 같은 시간을 벌었고, 이로 인해 살라미스 해전에서 그리스가 승리하게 되었다. 이로부터 페르시아는 약 70년간 그리스를 엿보지 못하게 되었다. 이런 스파르타의 엄격한 군사 교육의 역사와 레오니다스 왕의 희생정신을 지금의 서양인들도 그 상층부 엘리트들은 어릴 때부터 뱃속 깊이 배우고 또 배우고 있다.

손자병법 허실(虛實) 제6편에 보면 “비록 적이 많다 하더라도 가히 싸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敵雖衆 可使無鬪)는 말이 나온다. 적이 아무리 많다고 해도 그들이 한꺼번에 덤벼들지 못하도록 한다면 그래도 싸워볼 만하다. 테르모필레 험로는 바로 그런 곳이었다. 이런 병목지역을 잘 선택한 뒤에 스파르타 용사와 같이 결사각오의 정신만 뒷받침될 수 있다면 승산은 있다. 손자병법 행군(行軍) 제9편에 보면 “병사가 많다고 해서 이로운 것만은 아니다. 다만 그 병력을 믿고 제멋대로 나아가지 않고, 힘을 충분히 모으고, 적을 잘 살피고, 병사들의 마음을 뚫뚫 뭉치게 해야 한다.”(兵非多益 惟無武進 足以并力 料敵 取人而已)고 말하고 있다. 병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좋은 것은 아니다. 먹여 살려야 할 식량도 많이 들고 지불해야 하는 급료도 많이 든다. 그래서 잘 훈련된 적정수의 병력이 가장 좋다. 실

제로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상대해서 이긴 예는 많이 있다. 이순신 장군이 13척으로 133척을 상대했던 명량대첩, 권율의 3,000명이 일본군 3만을 상대했던 행주대첩, 포르투갈 함대 12척이 투르크-인도 연합함대 300척을 상대했던 디우해전, 핀란드군 30만 명이 소련군 148만 명을 상대했던 겨울 전쟁, 국군 35명이 중공군 800명을 상대했던 베티고지 전투, 국군 294명이 월맹군 2,000명을 상대했던 짜빈동 전투, 신라군 3만 명이 당군 20만 명을 상대했던 매소성 전투, 프랑스군 800명이 베트남군 12,000명을 상대했던 자딘방어전, 주나라 46,000명이 은나라 70만 명을 상대했던 목야대전 등 이루 셀 수 없다.

敵 雖 衆 可 使 無 鬪
적 수 중 가 사 무 투

비록 적이 많다하더라도 가히
싸울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적은 병력으로 많은 병력을 상대할 때의 요령을 정리하면 이렇다. 좁은 목을 선택해서 먼저 점령한다. 그리고 잘 훈련된 부대를 죽을 각오의 정신교육을 시킨 후에 지킨다. 살다보면 엄청난 숫자 때문에 기가 질려 손을 놓게 되는 경우가 있다. 기억하라. 숫자는 숫자일 뿐이다. 주눅 들지 말라. 임전무퇴, 항복하지 않는 불굴의 정신, 이러한 스파르타의 정신으로 사업을 한다면 아마도 성공하지 못할 사업가는 없을 것이다. 테르모필레 전투 이후 전사자들은 국민적 영웅이 되었다. 시인 시모니데스는 비문에 그들을 위한 유명한 시를 바쳤다. “지나가는 나그네여, 스파르타의 사람들에게 가서 전해주시오. 당신의 법을 받들어 우리들, 여기 잠들었노라고.”

스파르타의
정신으로 용기 있게
살아가자.

敵 적 적
雖 비록 수
衆 무리 중
可 옳을 가
使 하여금 사
無 없을 무
鬪 싸울 투

29

승리를 도둑질하지 않는다 알렉산더의 가우가멜라 전투

승가위야(勝可爲也)

- 『손자(孫子) 허실 제6편』

‘고르디온의 매듭(Gordian Knot)’이라는 말이 있다. 오늘날 고르디온의 위치는 터키의 앙카라에서 남서쪽으로 약 100km 떨어진 곳에 있는 마을이다. 소아시아에서 페르시아 군대를 물리친 알렉산더 대왕은 고르디온이라는 마을에 들어서게 된다. 그 곳에는 제우스 신전이 있었고, 신전에는 매듭이 묶여 있었는데 이 매듭과 관련하여 옛날부터 내려오는 전설이 있었다. 신전 기둥에 묶인 매듭을 푸는 자가 아시아를 다스리게 될 것이라는 전설이었다. 그동안 그 매듭을 아무도 풀지 못했다. 사람들이 알렉산더가 매듭을 어떻게 푸는지 보려고 모여들었는데 바로 그때 알렉산더는 차고 있던 칼을 뽑아 단숨에 그 매듭을 잘

라 버렸다. 서로 얽히고설킨 매듭을 하나하나 풀려고 했을 뿐 그 누구도 매듭을 칼로 잘라낼 생각을 하지 못했던 것이다. 이때 알렉산더는 말했다. “보라 나는 아시아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할 것이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기원전 331년 10월 1일 페르시아 왕 다리우스 3세와 마케도니아의 알렉산더 대왕이 벌인 전투다. 이 전투로 페르시아 제국은 멸망했다. 다리우스는 알렉산더의 페르시아 침입을 막으려고 지금의 이라크에 있는 모술 근처 가우가멜라 평원에 진을 치고 알렉산더의 진격을 기다리며 군대를 배치했다. 페르시아군의 경우 전차 200대, 경보병 62,000명, 그리스 중장보병 2,000명, 기병 12,000, 전투 코끼리 15마리 등으로 총 90,000~100,000 정도의 병력이었을 것으로 추산한다. 이에 맞서 마케도니아 측은 경보병 9,000명, 중장보병 31,000명, 기병 7,000으로 수적으로 훨씬 열세였으나 장비와 훈련 정도는 페르시아를 압도했을 것으로 본다.

이때 알렉산더는 특이한 대형을 만들었는데 바로 옆으로 기울어진 사선대형이었다. 오른쪽에 병력을 강화하고 알렉산더가 위치하여 지휘했다. 알렉산더의 계획은 다리우스군을 평탄한 곳으로 끌어내려 강화된 우익부로 다리우스군의 중앙부 좌측을 돌파하는 것이었다. 페르시아군은 3.6km의 신장된 전열로 알렉산더군을 포위할 계획을 세웠다. 가우가메라에 도착한 양

매듭을 칼로 자르는 알렉산더 /

출처 : <https://medium.com/basic-income/cutting-the-gordian-knot-of-technological-unemployment-with-unconditional-basic-income-e8df7f8eaa16>



군은 최초 3~4일간 탐색전을 벌였다. 전투 전날 밤, 페르시아군은 알렉산더의 야간기습공격을 두려워하여 진지에서 밤새 무장한 채로 서있었으나 알렉산더군은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식량도 충분히 지급되었다. 알렉산더는 이때 아습을 건의하는 측근에게 “나는 승리를 도둑질하지 않는다.”라는 유명한 말을 하게 된다. 알렉산더군은 드디어 공격을 시작했다. 좌익과 중앙부는 서서히 전진하여 강화된 우익부로 결정적 일격을 가할 계획이었으나 다리우스군 중앙 좌단부에 간격이 발생되었다. 알렉산더는 친위기병으로 하여금 썰기형 돌격대형을 갖추어 간격 사이로 집중적으로 돌파를 했다. 썰기? 그렇다. 순식간에 간격을 벌리는 썰기를 말한다. 이렇게 알렉산더의 썰기형 돌파는 다리우스의 부대를 양분시키는 결과를 가져다주었다. 그 돌파된 간격으로 마케도니아군은 전형적인 방진 형태로 돌진했다. 다리우스군은 포위를 시도하려 했으나 알렉산더의 썰기형 돌격으로 오히려 커다란 간격만 허용하고 말았다. 다리우스군은 다시 양측방의 기병대로 하여금 알렉산더군을 포위하기 위해 알렉산더군 좌우익 후방을 공격하게 했으나 미리 예측한 알렉산더는 예비대로 가지고 있었던 엄호 경보병과 기병으로 하여금 이를 격퇴했다. 가우가멜라 전투는 위급한 상황에서 미리 준비한 예비대를 이용한 전제로써 그 가치가 높다. 알렉산더군의 맹렬한 공격 앞에 페르시아군이 무너졌다. 알렉산더는 곧바로 다리우스군에 대한 총추격을 명령했는데 해질 때까지 쉬지도 않고 다리우스를 추격했다. 결국 이 전투의 패전이 원인이 되어 페르시아는 멸망하고 말았다.

손자병법 허실(虛實) 제6편에 보면 “승리는 가히 만들 수 있다.”(勝可爲也)는 말이 있다. 승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승리는 여러 가지 조건이 잘 맞아떨어져야 한다. 단순한 의지만으로는 부족하다. 알렉산더에게는 승리에 대한 남다른 감각이 있었고 승리를 만들어 나갔다. 페르시아군과 진영을 마주 보고 대치할 때 그들을 지치게 하는 전략을 많이 사용했다. 동시에 자신의 부대는 편안하게 쉬며 힘을 비축했다. 가우가멜라 전투에서 그렇게 했고 그 후 기원전 326년에 있었던 인도와의 히다스페스 전투에서도 그렇게 했다. 적의 진영 앞에서 밤새 북을 치고 횃불을 돌리는 행위로 그들이 잠을 자지 못하게 했고, 스트레스와 피로감을 가중시켜 나중에는 기진맥진하게 만들었다. 이는 손자병법 시계(始計) 제1편에 나오는 ‘적이 편안히 있으면 피로하게 만들라.’(佚而勞之)의 병법이다. 육체가 무너



알렉산드리아를 건설하는 알렉산더, 팔라치오 콘스타치(1737년 작)
/ 출처 : art.thewalters.org/browse/location/18th-century-art

지면 정신까지 영향을 미쳐 건전한 판단을 흐리게 하며, 정작 싸울 때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하게 된다. 알렉산더의 사선 대형이나 썰기대형 그리고 예비대의 운용은 그 누구도 시도하지 않았던 창의적 발상이었다. 특히 사선대형은 훗날 프레드릭 대왕이 이를 벤치마킹해서 오스트리아군을 상대한 로이텐 전투에서 승리하는 단초가 되었다. 썰기형 돌파의 핵심은 지휘관의 위치다. 가장 위험한 맨 앞에서 이끌어야 한다. 알렉산더는 맨 앞에서 죽음을 무릅쓰고 대형을 이끌었다. 승리는 거저 주어지는 게 아니다. 이렇게 여러 노력들이 조합되어 비로소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는 전적으로 리더의 전략과 리더십에 달려 있다. 그래서 승리는 가히 만들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알렉산더는 사람의 마음을 얻는 리더십을 발휘했다. 무엇보다도 여러 문화를 수용하는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했다. 지역과

勝 可 爲 也
승 가 위 야

승리는 가히 만들 수 있다

勝 이길 승
可 옳을 가
爲 할 위
也 어조사 야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품었다. 그는 자주 “나의 주장에 동조 못 하는 것은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우월적 시각으로 다른 민족의 문화를 낮춰보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하곤 했다. 그는 칼의 정복자가 아닌 인간과 문화를 이해하는 힘으로 세계를 정복한 영웅이기를 바랐다. 계락을 짜는 데 능란했던 중국 전국시대의 기인 귀곡자(鬼谷子)는 귀신같은 고수의 승리비결 열 가지를 제시했다. 그중에서 주목할 만한 대목이 있다. “나와 함께 일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람을 잘 파악해야 한다. 모든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다. 사람을 파악하는 것은 일을 성공시키는 관건이다. 일을 시작하기 전에 같이 일할 상대가 나와 완전히 의기투합할 수 있는 사람인지 살펴야 한다. 만약 상대가 나에게 투합하지 않으면 나 자신을 바꾸어 상대와 투합해야 한다.” 그리고 덧붙였다. “대단한 인재만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다 쓸 수 있는 것이다. 상대의 실력과 의지를 파악할 수 있다면 모든 사람을 용도에 맞게 쓸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서로 원하는 바, 즉 공유할 수 있는 비전이 있어야 같이 투합할 수 있다.” 세계정복의 비전제시와 통합의 리더십을 발휘한 알렉산더는 귀곡자의 승리비결을 그대로 실천에 옮긴 듯 하다. 승리에는 그만한 이유가 존재한다.

카이사르는 스페인에서 알렉산더의 전쟁 이야기를 듣고는 눈물을 흘렸다. 이때 친구들이 왜 우냐고 묻자 이렇게 대답했다. “알렉산더 대왕은 지금 내 나이에 수많은 민족을 지배했는데, 나는 내세울 만한 명예로운 업적이 없으니 어찌 울지 않을 수 있단 말인가?” 카이사르를 울게 만들었던 천하의 알렉산더도

근사하게 전쟁터에서 죽은 것이 아니라 열병으로 침대에서 죽었다. 기원전 323년 새로운 도읍지 바벨론 왕궁에서 죽을 때 그의 나이는 불과 33세였다. 그의 병을 고치기 위해 명의들이 수없이 다녀갔지만 아무런 차도가 없었다. 걱정하는 측근에게 그는 말했다. “내 걱정은 하지 말게. 사람이란 죽으면 잠을 자게 되는 법, 살아 눈 뜨고 있는 이 순간 어찌 잠잘 수 있겠는가. 얼마 남지 않은 귀중한 시간을 가장 충실하게 보내리라.” 그리고 마침내 운명할 때 사람들을 불러 놓고 말했다. “내가 죽거든 문을 때 손을 밖에 내놓아 남들이 볼 수 있도록 하시오. 나는 단지 세상 사람들에게 천하를 쥐었던 알렉산더도 떠날 때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보여 주고자 하는 것이요.” 승리에도 이유가 있듯이 큰 인물도 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다. 삶의 진실을 알고 모든 것을 품는 포용력이다. 손자가 말한다. 세상 사람들이, 알렉산더처럼 위대한 업적을 남기고 싶은가? 그렇다면 품자. 적어도 내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품자.

결국에는 빈손으로 간다는
것을 진심으로 알게 되면
삶의 태도가 달라진다.

페르시아의 다리우스 3세와 싸우는 알렉산더의 모자이크, 나폴리 국립 고고학 박물관 / 출처: wikipedia

